



일본 대지진 경제적 충격파는 어디까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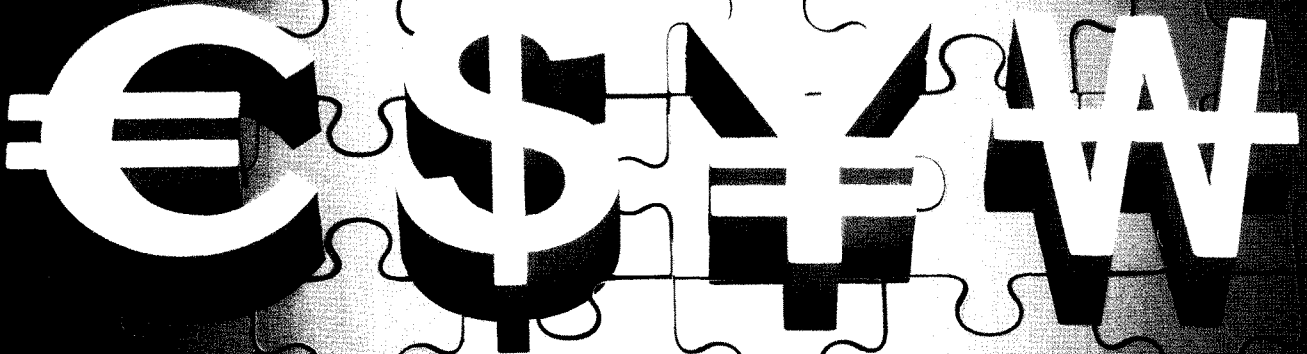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본으로부터의 부품소재 공급 차질 우려

한국경제가 일본 동북대지진의 영향을 직접 받을 경로 중 하나는 한일 무역을 통한 충격이다. 먼저 대일수입의 관점에서 그 정도를 가늠해보기 위해 고베대지진 때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에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4.6%에서 15.3%로 크게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10여년간 수입선의 다변화와 제품의 국산화 등이 진척되면서 전반적인 대일의존도는 줄어든 상황이다. 그러나 양국의 분업구조상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간재와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핵심 부품 및 소재를 일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출상품

제조용 원자재가 우리나라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고베대지진 당시의 3.7%에서 최근 5년 평균 4.4%로 높아졌다. 대일수입 가운데서는 수출용 원자재의 비중이 1990년대 중반 15.1%에서 현재 28.8%로 늘어났다. 여기에는 각종 정밀화학, 플라스틱 제품들과 철강류 등이 포함돼 있다. 그 외에 대일수입의 나머지를 내수용 원자재, 수출 및 내수용 자본재(부품 및 생산설비)가 차지하고 있어 이들(수출용 원자재 및 자본재+내수용 원자재 및 자본재)을 모두 합하면 대일수입에서의 비중이 93.6%에 이른다.

2010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품목들은 철강판, 반도체, 플라스틱 제품, 반도체 제조장비, 기타 화학제품,



유리제품, LCD 제조장비 등의 순이며, 모두 부품소재, 기계류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일본 동북대지진의 영향으로 생산시설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전력공급 차질로 가동 정상화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적체는 수주에서 수 개월 이상 일본기업들의 조업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당 품목들에 대한 재고 보유 수준이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를 견딜 수 있

는 물량이라고 **우리나라는 높은 대일 부품·소재 의존 구조로 인해 지진피해에 취약하다**
당장은 우리 기

업들의 생산활동에 큰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겠지만 보유중인 부품소재의 재고 소진 기간과 일본 기업들의 생산 정상화 시점간에 미스매치가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달리 부품소재의 재고 여력이 없어 충격이 오기까지의 시차가 더욱 짧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체들이 주로 수입하는 일본 제품들의 경우 수입선 다변화나 대체가 힘든 것들이 대부분

인데다가 자칫 급한 조업 재개로 품질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대일 수출의 경우 당장 거래선의 조업중단, 물류 기능의 마비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고베대지진 이전 우리나라의 대일수출은 소비재가 50%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였다. 그런데 지진이 발생하면서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어 의류와 같은 소비재의 대일수출은 타격을 받은 반면 일본 정부의 재정투입으로 인한 인프라 건설 수요 확대로 원자재와 자본재 수출이 크게 늘어난 바 있다. 대일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0년 기준으로 15.5%에 불과한 상황이다. 나머지 84.5%에 해당하는 석유제품, 석유화학 제품, 철강, 복구에 필요한 건설 관련 자재와 장비 등이 수출이 일본판 뉴딜 정책의 시행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향후 1~2분기 정도에 걸친 경기 침체 이후 일본경제가 재정지출의 효과로 회복국면에 진입하게 되면 관련 산업 부문의 대일 수출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수출, 일본 공백 메꾸기는 오래가지 못할 것

중국과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경합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의 수출구조 특성상 일본 업체들의 조업 차질에 따른 대체 물량을 우리나라 업체들이 공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단기적으로 생산 차질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되는 석유화학 분야와 반도체, 자동차, 전자기기 등에서 일본의 생산 공백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메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극단적인 경우를 배제하면 일본 기업들의 생산 차질이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수출 제조업 가동률이 이미 높은 부문이 많아 이번 지진을 계기로 추가적인 생산 확대를 할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동북대지진으로 인한 우리 수출에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엔화 가치의 향방을 가늠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 수출에의 엔화 영향력은 매우 높다. 일본의 수출총액 대비 우리나라의 수출총액 비율과 원/엔 환율의 상관계수가 0.92에 이른다. 엔화가 강세인 시기에는 우리나라 수출총액이 일본 대비 63.5%(2009년 2분기)까지 높아졌던 반면 엔화 약세 시기(2006~2007년)에는 50% 초반에 머물렀다. 그런데 앞서 전망한 것처럼 현재의 단기적 엔화 강세는 점차 약세 전환될 것이다. 재정적자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내저축과 통화증발을 활용하여 지진 복구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일본의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와 디플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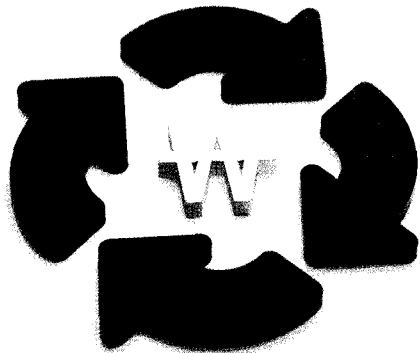
션 압력 완화를 피할 유인이 일본정부에게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우리 기업들의 일본제품 공백 대체는 지속되지 어려울 전망이다. 오히려 일본 기업들의 조업이 정상화되고 환율까지 그들에게 우호적으로 작동한다면 주요 수출시장에서 일본과의 경합 관계는 좀 더 치열해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분업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가능성도

좀 더 넓게는 아시아의 분업구조 자체가 변화하는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다. 일본은 전 세계 부품소재 공급 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중 우리나라와 중국, 동남아시아로의 수출 비중이 매우 높다. 2007년 기준으로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으로의 부품 공급이 1,104억 달러에 달하며 동북아 국가들의 우회생산기지가 있는 동남아로의 부

**복구 수요가 가시화될 경우
대일 수출은 확대될 것이다.**

**아시아 분업구조의 중
장기적 재편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품 공급도 592억 달러에 이른다. 일본으로부터의 부품 수출 물량이 차질을 빚게 되면 우리나라와 중국, 동남아 등의 교역에 차례로 병목현상이 발생하면서 미국과 EU 등 선진국과의 무역까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분업 차질이 지속되고 대지진의 파장이 더욱 악화될 경우 첨단 기계와 장비 등 생산 여건이나 환경 변화에 예민한 장치를 활용하는 부품소재 산업의 주요 시설을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에 설치하고 가동하는 것에 대해 국내외 기업들의 인식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지진을 포함한 재난이라는 리스크 요인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이러한 장치산업의 전환 배치를 시도할 경우 우리나라 등 다른 나라들이 고려 대상에 오를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서 부품소재에 대한 대일의존도가 전반적으로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

원자재 가격 안정에 따른 국내물가 영향 제한적

무역을 통한 파급경로 외에 원자재 가격 변동과 금융시장의 불안 등 간접적인 환경변화 또한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먼저 원자재 가격의 경우 일본의 생산시설 피해에 따른 수

요 감소로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원유를 대지진 이전 기록한 고점 대비 유종별로 4~5달러 가량 하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서 전망한대로 세계경제에의 영향이 제한적이고 중동의 정세 불안이 여전하며 글로벌 수요가 신흥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구조가 그대로인 상황이어서 대폭적인 하락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본 지진으로 인한 석유화학 등 각종 제품 가격이 상승 압력과 함께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복구활동이 시작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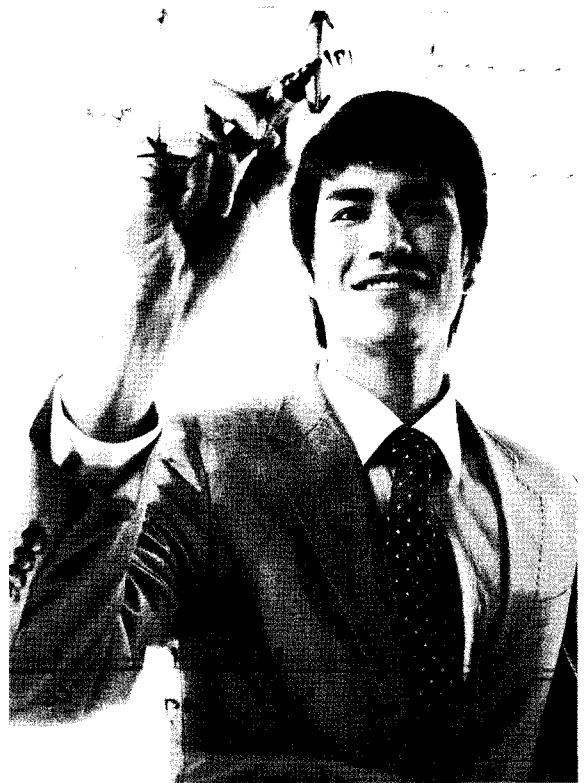
물가상승 압력 지속과 함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충격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면 원유 등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동북대지진 발생 이전 각 기관들의 올해 두바이유 전망치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였는데 2010년 기준 78달러 수준이었으므로 올 전망치가 90달러대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전년 대비 20% 안팎 오른 수준이다. 따라서 국내 물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2008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유가가 10% 오르는 경우 국내 물가는 0.68%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금융시장에 동북대지진이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투자잔액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7.9%로,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투자국인 미국이나 유럽보다 작기 때문에 직접적인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가운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타 투자(은행간 대출을 포함 10%) 측면에서의 부정적 파급효과는 비교적 클 수도 있다. 게다가 문제는 이번 사태가 악화될 경우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통해 우회 유입되는 투자자금까지 동반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유럽 재정위기까지 악화되는 경우 외화 자금시장 등 금융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화는 장기적으로 강세 전환할 것

대지진 발생 이후 엔화의 강세가 지속되는 동안 원화 가치는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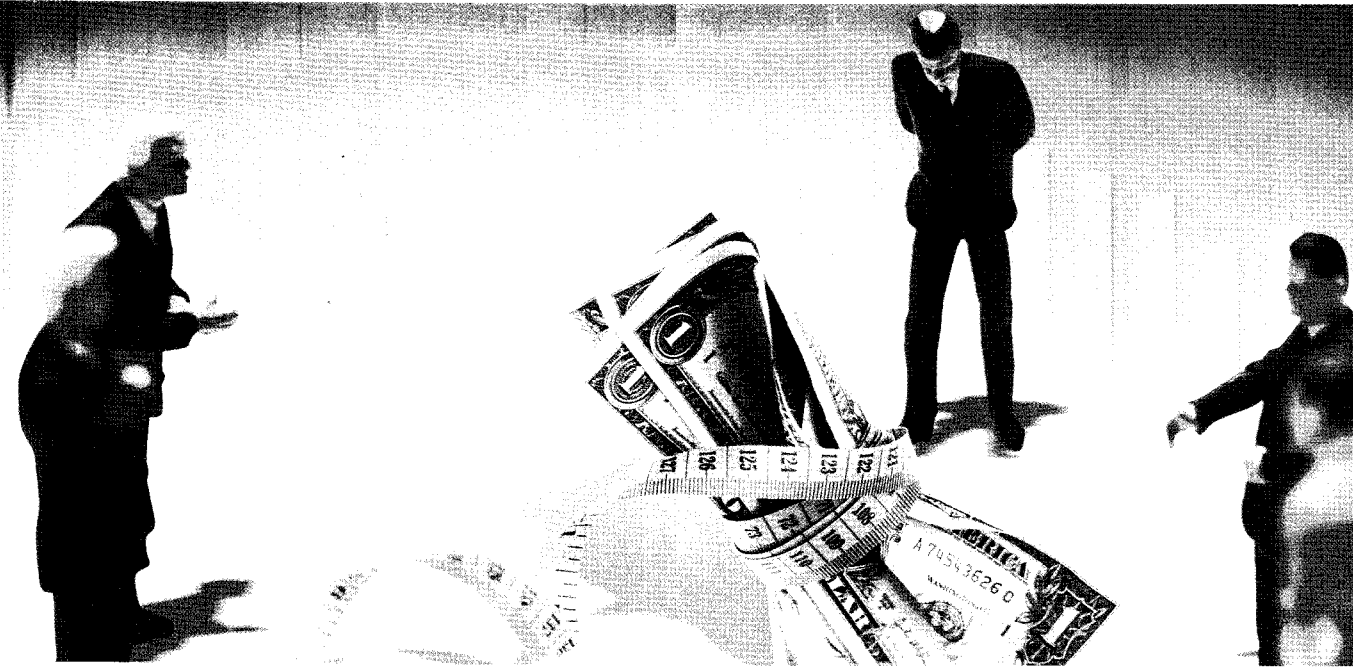


와 일본의 지리적으로 같은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 위치한 국가로서 산업측면에서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하더라도, 특히 금융 부분의 위험도가 높아져 변동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과거와 같은 동조적 관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아시아 역내 제조업 분업구조의 재편 방향을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적극성 또한 중요할 것이다.

금융측면에서 일본은 선진국 투자자금의 대표적인 원천으로 기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신흥국 투자처 가운데 하나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민간부문 신용위험이나 유럽의 재정위험, 일본의 자연재해와 같은 위험요인이 불거질 때마다, 엔화가 해외 투자자금의 환류로 인해 강세를 나타



내는데 반해 원화는 위험자산으로 인식되어 강한 절하 압력을 받아 왔다. 대지진으로 인해 증폭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도에 따라 한동안 약세 흐름을 이어가다가 강세로 전환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원/엔 환율은 급등국면 이후에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며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전망이다.

경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연초부터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지진으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현재 금리가 중립적인 수준보다 낮은 데다가 1분기의 높은 유가 수준이 시차를 두고 물가 압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여타 생필품 가격도 아직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정책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나가는 것이 옳을 듯하다. 다만 향후 대내외 경기 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 큰 만큼 상황을 좀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각국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이번 사태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결국 만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번 사태는 과거의 자연 재해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유동성 공급의 주요 주체 중 하나인 일본이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일본 동북대지진의 여파는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에게도 부품소재 조달난, 금융불안의 파급이라는 리스크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가능성은 낮으나 일본의 핵재앙으로 일본 및 세계경제가 위축되고 국제 금융시장도 일대 혼란을 겪는 파국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이번 일본대지진의 리스크가 기존의 유럽재정 위기, 국제원자재 파동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모니터링하면서 대비하는 제제도 필요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아시아 역내 제조업 분업구조의 재편 방향을 지켜보면서 발빠르게 대응하는 적극성 또한 중요할 것이다.